

민주공화당

기초민계 485 호

1966. 10. 21

경유 원무임소 장관

수신 서울시장

제목 첩거민 월동대책에 대한 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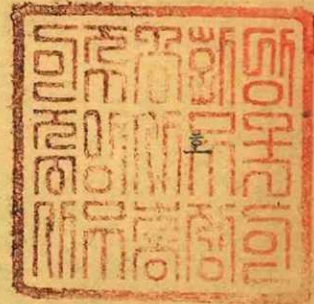
별첨 탄원서를 귀부에 이첩하오니 첩거민의 딱한실정을 감안하여
선처하여 주시고 결과를 회보 바랍니다.

유첨 : 탄원서 1부. 끝



기

재





판원서

재기트동철거대상자일동



관 원 서

북지 국가 건설에 주야분투 노력하시는 **共和黨議長**님께 만감의 경의 표 하나이다.

귀송 특히 당국에서는 동대문구 제기 3동 136번지 (고려대학교 전면 도로)로 부어 흥파 국민학교 측면간에 인접하는 도로를 신설코저 서두르니 저희 보상대상자 등의 불시에 당하는 일이라 그 사기와 데지 및 건물 보상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금치 못하여 다음 사항을 탄원 하나이다.

1. 동설에 의하면 당국에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신설도로 기타 공사가 심한 재정난에 당면해 있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불원등질이 닥치는데 저희들도 또한 제대로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가옥을 철거 당할때 생활대책이 막연하므로 비록 금을 요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동질이 지나고 완전 보상 대책이 수립 될때까지 해공사를 연기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2. 최금 모 담부자의 말에 의하면 가옥 철거시 건물에 대한 보상금만 지급하고 데지에 대한 보상금은 명년도에 지급 한다는데 이것이 사실 이라면 서울시민 전체가 지실하다 시피 저의 철거 대상자들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상대로한 하숙을 얻으로 하거나 전세방을 놓아서 간신히 생계를 영위하는 영세민들이라 그렇지 하면 졸지에 생업이 곤경뿐 아니라 겨우 얼마뒤 지 앞은 건물보상금 받아서 전세금을 지급하고 나면 가옥주는 당장 방한칸도 마련하지 못할 실정이니 데지 보상금이 지급 될때까지 어떻게 살라는 것입니까?